

소감문

조경빈

8월6일부터 8월11일까지 하가다 캠프를 갔다
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점할수록 재미있어졌다
다행이 방학기간이여서 편히 보낼 수 있었지만
거기 시간표가 너무 힘들었다.
아침7시반부터 저녁12시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하가다 하고 그
래서 매일 피곤했다.
맨 처음 예는 거기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었다.
그리고 팀을 짰다. 그리고 나서 OT를 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
과 친하지 않아 조용히 하고
나설려고 하지 않았다. 조용히 나랑 같이 온 애들과 떠들면서
있었다.
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같은 조 애들과 친해져서 하가다도 열
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.
그러다가 3번째 날 성령집회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1번째 날,
2번째 날과는 달리 찬양이 엄청 신났다.
나는 찬양이 그렇게 신나는 줄 몰랐다.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
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목 아플 때까지 찬양했다.
그리고 다음 날은 점심을 먹고 나서 하가다 밖에 하지 않았다.
그리고 4번째 성령집회 날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보고 싶었다.
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. 그 대신 우리 교회 형 2명이 성령
을 받았다. 받는 모습을 보는데 매우 슬퍼 보였다. 그걸 보고
나니 '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모습을 할까' 라는 생각도 했
다. 다음 하가다 캠프도 가고 싶어졌다.